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제주관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향 자

1. 머리말

우리나라는 2013년 국제관광객이 2,700만 명으로 인바운드 1,218만 명(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2,0% 증가율), 아웃바운드 1,485만 명(연평균 4,4% 증가율)이 되어¹⁾, 2015년에는 국제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메가관광시대의 개막은 주변국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산업 전반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선진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변화의 과정 속에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해 나가느냐는 우리 국가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류광훈·김송이, 2013). 이와 같이 저성장 시대의 돌입으로 관광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관광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어 왔지만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양적 성장 정책이 주도권을 갖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1) 그러나 국민국내관광총량은 국민여행실태조사 방법이 변경된 2009년 375,340,664일, 2010년 339,607,551일, 2011년 286,947,961일, 2012년 365,282,249일로 최근 몇 년 동안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은 특히 제주관광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기이다. 제주방문객이 1,000만 명이 넘어서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도가 지닌 지리적 특수성, 정책적 노력 등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중국 등 주변국의 시장 변화에도 무관하지 않다. 현재와 같은 시장 흐름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관광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발전적인 제주관광을 위해서는 다시금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섬 지역으로 관광객 수의 증가에 의존하는 양적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수용력의 한계로 물 부족 심화,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증가, 쓰레기 증가, 혼잡도 증가로 인한 관광객 만족도 하락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정승훈·송재호, 2013)고 지적하고 있다.

미래관광의 예측을²⁾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정을 거쳐야 하나 본고에서는 기존의 문헌 연구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보고 미래의 제주관광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고에 제시된 각종 현상에 대한 분석은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배경과 원인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관찰과 연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제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미래환경변화와 패러다임 전환 논의

정승훈·송재호(2013)은 ‘미래 관광환경 변화와 중장기 관광정책 방향’ 연구에서 미래예측에 대한 기존 연구 9가지³⁾를 토대로 하여 주요 예측이슈의 빈도수를 분석할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야의 구분은 미래 예측분야에서 대부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환경분야로 나누고 있어 이를 기초로 하여 소비·공급 분야를 추가하였다.

2) 미래예측(foresight)은 이미 알고 있는 과거와 이미 알 수 있는 미래의 정보를 단서로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적 정확성을 가지고 예측하는 작업, 다양한 분야의 사회 및 정책적 수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의미함(정승훈 송재호, 2013)

3) 메가트렌드만 제시한 연구는 산업연구원(2008),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중앙일보(2011), 대한민국정부(2011), 국토연구원(2012), 미래예측만 제시한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2009), 심원섭(2012), 문화체육관광부(2013), 미래예측, 메가트렌드를 제시한 연구는 국토연구원(2009), 문화체육관광부(2011)

〈표 1〉 미래예측분야 및 메가트렌드의 선행 연구동향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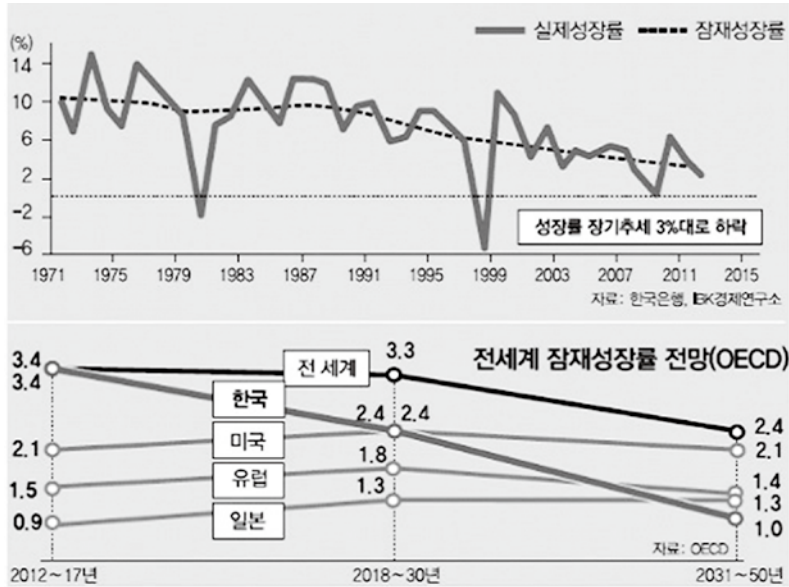
분야	주요 내용
정치	① 거버넌스 강화 및 분권화, ② 남북한 경제협력 통합의 진전, ③ 테러 및 국지전 증가, 첨단전쟁, ④ 재정부실로 지자체 위기, ⑤ 한반도 주변 세계 주요국들의 권력 재편, ⑥ 공생 및 상생가치의 강조, ⑦ 국가간 자원 확보 경쟁 심화
경제	① 경제성장과 소비의 양극화, ② 세계경제의 통합, ③ 세계경제의 역학구도와 비교우위 구조의 변동, ④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⑤ 지식경제로의 이행, ⑥ 한국경제의 성장과 위상 강화 등
사회·문화	① 인구구조의 고령화, ② 저출산(인구감소), ③ 삶의 질 중시, ④ 다문화사회 가속화, ⑤ 여성지위 향상 등
환경	①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의 부상, ② 지구 온난화, ③ 환경안보의 중요성 부각, ④ 에너지 및 자원부족, ⑤ 녹색성장 담론의 확산 등
과학기술	① IT·BT·NT·신소재 기술의 융합, ② 디지털 네트워크기술의 성숙, ③ 유비쿼터스 시대로의 진입, ④ 교통기술 발달과 대중교통체계의 혁신 등
소비·공급	① 진화하는 콘텐츠소비 경험, ②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영향력 증대와 개별화, 다양화된 시장, ③ 미디어에 의해 연결된 소비자와 시장, ④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마케팅 및 시장 확대, ⑤ 윤리적 소비문화의 등장과 변화하는 기업

자료: 정승훈·송재호(2013), 미래 관광환경 변화와 중장기 관광정책 방향, 제주발전연구원.

2000년대 들어서 환경 변화가 어느 때보다도 급하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경제의 부상, 세계경제위기의 가속화, 기후환경변화 및 자원위기 심화, 디지털 혁명과 SNS 확대 등 이전 세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이전 세기의 사고체계 속에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패러다임이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치관을 지칭한다.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것은 새로운 개념, 새로운 가치관에 의하여 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앞에서 미래환경 변화요인에서 제시될 수 있으며, 본 고에서는 이중 제주관광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서 저성장시대, 기후변화시대, 공생가치 확산, 행복 가치 등 4개 요인을 들어보고자 한다. 이외에 중국을 위시한 동북아시아의 성장, 과학기술의 발전 등의 요인은 패러다임에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관광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와 함께 한국도 저성장사회로의 진입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경제연구기관에서는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어 저성장국면으로 진입하는 한편⁴⁾,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이 지속될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류광훈·김송이, 2013).⁵⁾



[그림 1] 한국 실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추이

자료: www.jiniblog.com(대한민국 실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추이(1971~2015))

이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⁶⁾, 이에 따라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61.9%에서 2012년 61.3%로 소폭 하락하였다.

4)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6%이나,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3.0%, 2.8%로 이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2년 연속 3% 미만의 성장률을 보일 것(2012년 2.0%)으로 보여 일부에서는 '저성장' 경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 저성장(low-growth)이란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태가 3~4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을 일컬음

5) 한국은행이 제시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2020년 기간 중 3.6% 수준,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50년대에는 1%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6)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71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기준 1.30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인구 성장률도 1970년 2.21%에서 2000년 0%대로 하락함. 고령화 지수는 1970년 7.2에서 2012년 77.9로 10배 이상 상승하였음

저성장과 함께 우리사회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소득불균형의 심화일 것이다⁷⁾.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고착화됐을 뿐만 아니라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류광훈·김송이, 2013). 소득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타 계층의 소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⁸⁾. 국내 계층 간 소득불균형 심화 등으로 국내 관광 참여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저성장 시대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소비 및 투자의 위축, 고용악화, 가계 부채 증가, 소득 양극화 등 국민 경제 및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전 세계는 자원고갈, 온실가스 과다배출로 인한 지구 기후변화를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IPCC(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는 산업혁명 이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ppm였는데 2005년 379ppm, 2013년 5월에는 400ppm을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450ppm 이상이 되면 해수온도 및 대기온도가 통제 불능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예측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구 기온 또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미래사회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 온난화가 장기화될 경우 생태계의 저항력이 약화되고 세균과 질병 창궐, 숲의 약화, 야간에 나무의 이산화탄소 배출 급증, 삼림의 잎마름병 급증/붕괴 등으로 인하여 지구온도가 추가로 6~8도 증가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구 평균 해수면의 높이가 1961~2003년간 매년 1.8mm씩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2~2005년 동안의 평균해수면 상승률은 서해 1mm, 동해 1.4mm, 남해 3.4mm으로 관측되었는데, 예를 들어 부산은 매년 2.5mm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해수면 변화도 예외가 아니어서 1960~2000년 해수면이 연간 서귀포 6mm, 거문도 5.9mm, 제주 5mm로 전 지구 해수면 상승률 1.8mm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2014년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향후 10년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소득 양극화와 극단적인 이상기후를 지목했음

8) KDI(2010)에 따르면, 1996년 중산층 가구 비중이 67.5%였지만,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 58.5%, 2009년 56.7%로 낮아짐. 반면 빈곤층은 2009년 19.2% 증가하였음

에너지 고갈 측면을 보면, 전 세계는 이미 피크오일(2010~2015)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피크오일을 기점으로 해서 원유를 생산하기 어려워지고 원유추출 비용이 증가하면서 유전의 경제적 효용이 점차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전 세계 54개 산유국 가운데 40개국은 현재 생산 정점을 넘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국이 전체 원유 생산량의 감소분을 메워 주며 생산량을 늘리려 고군분투⁹⁾ 중이다(크리스 마틴스, 2011). 이러한 석유생산의 감소는 석유시대의 종말(2040~2050)을 예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마존, 인도네시아 등 지역의 인구 증가, 빈곤, 불평등, 국가부채 등의 요인으로 열대우림¹⁰⁾이 급속히 파괴되어 오고 있다. 기후변화가 대규모 지진, 해일 등의 재해로 나타나 생태계, 산업·경제는 물론 생활양식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1,250억 달러의 손실액과 30만 명의 사망자 발생이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은 전 지구적 위협적인 요인으로 우리 사회는 앞으로 경제 및 생활양식 등 전국면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공생 및 상생 가치가 대두되면서 공생적 생태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대이다. 공생은 타인, 즉 타자의 (인격적) 가치를 인정하는 공감,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공생, 인간과 자연/생물권과의 공생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자연/생물권과의 공생은 앞서 제시된 기후변화시대의 필요한 자세이다. 모든 인간의 생명, 전체로서의 종, 다른 모든 형태의 생명은 생명 그 자체를 지속시켜 주는 풍부하고 복잡한 연결 속에서 지구화학적 과정과 서로 얽혀 있는데, 생물권의 생화학적 특징을 교란시키는 인간의 활동(화석연료 대량사용, 환경오염, 자원남용)으로 인간 자신의 생명과 전체로서의 지구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제레미 리프킨, 2010). 공생과 상생의 가치는 수직적·계서적 관계를 중시하는 산업시대와 중앙집권 국가 시대보다 수평적·네트워크적 관계를 중시하는 탈산업시대, 분권적 국가 시대에 더 중요한 가치이다.

이미 2011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생 발전’을 제시한 바 있다. 공생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9) Praveen Ghanta, "Is Peak Oil Real? A List of Countries Past Peak," Oil Drum, www.theoil Drum.com/node/5576(accessed October 28, 2010)

10) 열대우림의 숲은 육지표면의 6%를 차지 하지만 생물종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지구의 산소 40%를 생산하고 25%의 모든 의약품과 70%의 항암물질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

시장, 정치권과 시민사회,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힘을 합쳐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로 우리사회에 공생, 공존이라는 화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공생가치는 타인과 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공생 및 상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버넌스(협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11)에서는 새로운 관광발전모델로서 중앙정부는 협정 및 계약에 따른 조정의 역할 및 일부 재정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자체, 주민, 기업,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거버넌스를 형성함으로써 공생적 발전관계를 유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공정 사회, 공정 무역에 대한 관심에 따라 공정여행이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공정관광¹¹⁾은 관광을 하는 지역의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토대로 하여 추진되는 관광으로 공정관광이 확대될수록 역으로 지역주민의 향토문화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 커질 것이다. 공정관광이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3세계의 빈곤퇴치에 중점을 둔 빈곤퇴치관광(pro-poortourism), 책임관광(responsible tourism), 도덕관광, 윤리관광 등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신관광의 새로운 형태들과 함께 같은 맥락에서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김향자a, 2013).

넷째, 국민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에서 행복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언급하는 행복지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¹²⁾, 경제적 수치만 고려한 기존의 방식에서 문화(여가 및 관광)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삶의 조건에 주목하게 되었다. 문화(여가 및 관광)는 그 자체로서 행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줌으로써 행복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대체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가경쟁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철호, 2013). 국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호주와 스웨덴은 국가경쟁력이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최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한국은 낮은 국민행복도(50점)와 더불어 국가경쟁력 또한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11)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11)는 공정관광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문화를 함께 즐기며, 자연과 환경을 살리는 형태이며 지역커뮤니티의 경제적·문화적 측면, 생태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음.

12) 국민행복지수는, 경제발전은 불교적 전통문화에 기초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제적 발전만을 평가하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을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신뢰 회복과 사회적 통합으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데 중요한 기제로서 문화·관광의 역할에 대한 기대심리도 존재한다. 저성장 기류에 따라 최근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적 지원에 국한된 복지정책을 넘어 문화·관광향유권 보장을 통한 ‘정신적 복지’의 실현도 강조되고 있다(노영순·윤주, 2013). 또한 저성장 시대는 국민 실질 소득의 감소, 국가재정의 긴축 및 민간 투자위축 등으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국가지출, 민간 투자 및 소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조산업이 부상하는 가운데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은 대표적 창조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문화·관광산업은 탄소배출과 자원 활용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노영순·윤주, 2013).

3. 관광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변화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우리나라 관광정책은 부처별 대응으로 인한 관광정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미흡, 시장변화에 대한 임기응변적인 대응으로 정책집행의 일관성 부족, 규제완화 등 공급자 중심의 관광정책, 중장기적인 관광산업 육성정책의 부재, 외래객 유치중심의 불균형 성장 등의 문제로 인해 관광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심원섭, 2011)

공생 및 상생가치의 확산 및 거버넌스 강화, 동북아 경제성장과 우리나라의 저성장시대 돌입, 융합형 관광산업의 등장, 소비가치의 변화와 일과 여가의 밸런스 인식 등 관광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관광패러다임은 관광정책, 관광산업, 관광개발, 관광객(소비자) 등 4가지 측면에서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표 2〉 관광패러다임의 전환방향

분류	구 패러다임	신 패러다임
관광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성장 • 수출전략(인바운드 정책) • 주체 간 수직적 물리적 연계 • 독자적 정책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 발전 • 내수전략(국내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 다양한 주체 간 수평적, 협력 • 상호 연계·융합된 정책 영역
관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경쟁 • 요소투입형 성장모델 • 규제개선 중심 • 방문객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공존, 공유), 융합 • 혁신주도형 성장 기반모델(창조형) • 산업생태계 조성 중심 • 거주민 중심
관광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개발 • 점적 개발 • 시설 중시(하드웨어 중시) •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토건(土建)적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재생 • 네트워크형 개발 • 운영 콘텐츠 및 시스템 중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개발(생태유지적 개발)
관광객(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적, 정적 관광행태 • 시장 욕구에 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동적, 적극적 관광행태 • 시장 흐름을 주도

첫째, 관광정책 측면에서는 관광객수 증가 등과 같은 양적 성장에서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 관광품질개선 등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 외래관광객 유치라는 인바운드 정책위주에서 국내관광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내수활성화 정책으로의 전환,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사업체, 주민 등으로 이어지는 주체 간 수직적 물리적 연계에서 다양한 주체간 수평적 및 협력 관계로의 전환, 관광정책만을 주관하는 독자적 정책 영역에서 타 분야 정책과 상호 연계·융합된 정책 영역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둘째, 관광산업 측면에서는 시설 및 산업 주체간의 개별적이고 경쟁적인 관계에서 상생과 공존, 융합형으로의 전환, 현재의 노동, 하드웨어, 자본 등에 기반한 요소투입형 성장모델에서 지식, 콘텐츠, 기술 등에 의한 혁신주도형 성장 기반모델로의 전환, 규제개선 중심에서 산업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전환, 방문객 중심에서 거주민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관광개발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설개발 중시에서 기존 시설의 재생으로의 전

환, 시설중심의 점적 개발에서 시설과 주변지역과의 네트워크형 개발로의 전환,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에서 운영 콘텐츠 및 시스템을 중시하는 개발로의 전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토건(土建)적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개발(생태유지적 개발)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넷째, 관광객(소비자) 측면에서는 수동적, 정적 관광행태, 시장 욕구에 부응하는 관광에서 능동적, 적극적 관광행태, 시장 흐름을 주도하는 관광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4. 미래 제주관광의 방향

1) 미래 제주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기조

미래 제주관광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정책추진의 기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모든 정책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제주가 지닌 지리적 특수성 고려, 제주의 부존 자원성 고려,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려, 마지막으로 제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 등이다.

첫째, 제주가 지닌 지리적 특수성이란 제주도가 ‘섬’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남단에 위치하여 육지부와는 차별화된 아열대성 기후대에 속해 있으면서, ‘섬’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섬’은 특이하고 깨지기 쉬운 생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경제개발이 환경에 가하는 압력이 다른 본토 지역보다 훨씬 크다. 협소한 면적이 이를 더욱 가중시킨다. 게다가 섬들은 태풍, 지진, 화산 등 자연재해에도 노출되어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13). 정부는 제주도의 특수성 및 입지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선포하였으며, 이후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도, 선도적인 지방분권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는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으로 발전해나가고자 하였다.

둘째, 제주가 보유한 부존자원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는 180만년전 여러 번의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으로 천혜의 자연자원, 한반도 최고의 생태계 보전지역, 탁월한 경관성, 독특한 역사문화를 보유한 지역으로 이는 관광의 원자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붐에 인하여 해안가는 물론 중산 간

지역까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꽃자왈 등 제주만의 특수한 환경자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또한 아직 대부분의 제주방문객은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는 곳을 방문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제주도의 참다운 매력을 충분히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의 꽃자왈, 중산간의 경관, 제주민가의 고즈넉함, 1,000년의 신화, 1만8천 신 등 보다 다양한 자연자원, 문화자원, 생활자원을 발굴하고 가치를 부여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셋째,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관광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제주경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환경훼손이 지속된다면 중국에는 제주의 가치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단지 하나의 정책과제로서 '지속가능한 관광'이 아니라 제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관광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환경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은 획일적인 규제에 의한 개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차원에서 주창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산업계, NGO, 학계, 관계 등이 협력을 하여 각각의 역할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제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이다. 우선은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여야 한다. 시민이 즐기고 행복한 공간은 도시 방문객에게도 행복한 관광공간이 되기 때문이다¹³⁾(김향자b, 2013). 지금까지의 관광정책은 '제주도'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두었기 때문에 개인은 등한시되거나 때로는 희생도 따랐다. 그동안 한국을 지탱해 온 가치였으나 그 결과가 앞에서 이야기 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사회를 구현시키지는 않는다. 제주도의 주인인 주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해야 친절과 서비스가 우리나라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게 된다.

2) 미래 제주관광 발전 8대 과제

본 고에서의 미래 제주관광 발전과제는 현황분석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아젠다 도출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제주관광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해 오면서 제주관광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8대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

13) 이를 잘 설명해주는 용어가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임. 이는 2,500여년 전 춘추전국 시대에 '섭공'이라는 초나라 제후가 한 말임. 그 뜻은 가까운 사람들(가족, 직장인, 친구, 동창 등을) 기쁘게 해 보라,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나라 백성들까지도 온다.'임

다. 여기서 제시되는 미래 제주관광 발전과제는 앞에서 제시된 패러다임의 전환, 제주관광 정책 추진의 기초 등을 기초로 하여 제시되었다.

첫째, 질적 발전을 위한 제주관광정책 추진체계 도입이다. 2013년 제주 방문객은 1천85만1천 명(내국인 851만7천 명, 외국인 233만4천 명)으로 전년도 969만 1천 명보다 12% 증가했다. 관광수입도 6조5천463억 원으로 전년도 5조5천293억 원에 비해 18.4% 늘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다양한 관광유치 노력의 결과이지만 중국 관광객의 증가에 힘입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 변동성 높은 시장에만 의존하기 어려움으로 제주도가 명실 공히 한국의 제1관광지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질적 발전을 위한 관광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관광산업의 시장규모 확대와 함께 관광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는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오훈성·김향자, 2013). 또한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체계적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를 통해 우수 업체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든가 관광의 복합성, 다기능성을 고려하여 관광정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화관광 부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거버넌스형 관광협력체 구성 등 선진화된 관광정책추진체계의 구축이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제주도내 타 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규모, 조직 및 인력 등은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규모, 조직, 인력 등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잣대로서 정책추진효율성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문이다. 따라서 제주도 관광시장의 확대와 함께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광관련 조직 및 인력의 다각화 및 다변화를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국·내외의 관광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체영역의 강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관광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거버넌스는 국가 주도 중심집권적·집중적·수직적·독점적 통치에서 분권적·분점적·자율적·수평적·네트워크적인 거버넌스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관광산업, 관광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정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함께 협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마을 단위로 지역자치조직을 구성을 지원하고 마을에서 추진되는 각종 관광 사업의 효율적,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수시 협력 가능하도록 하며, 특별자치도내에서 거버넌스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한다.

셋째, 주민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관광이 추진되도록 한다. 지금까지 관광정책의 추진은 제주도의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제주도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그리고 제주관광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제주도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해서 제주도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광을 통한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관광산업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민주도의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정책 수단으로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으로 관광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이 관광비즈니스를 주도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내 다층적인 시민 단체와 민간조직(NGO)의 육성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지역마다 다양한 비영리민간조직(NPO)이 구성되어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소규모 문화, 관광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방문객에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고 있다. 이들 NGO나 NPO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팀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문화사업 혹은 지역관광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들은 지역의 자연 및 문화경관 보전, 생활문화 및 문화활동,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판매 등 각 부문에서 주민의 활동과 결합하여 자립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마다 마을마다 이러한 자립적인 사회적 기업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중심 관광(community based tourism)은 지역관광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문화와 자연, 산업 등에 기초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성을 높여 지역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전략이라 할 수 있다(김향자a, 2013). 넷째, 제주도 특성을 반영한 관광 개발 및 활용이 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섬지역으로 독특한 탄생설화와 일만 팔천 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올레, 돌담, 해녀문화와 같은 육지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를 지니고 있다. 2002년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에,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유네스코 3관왕이 되었다는 것은 제주도가 지닌 자연 자원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가 보유한 자연성과 문화성을 보전해 나가면서 제주만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육지지역과는 차별화된 역사·문화, 생활문화자원 및 자연생태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관광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제주 문화관광, 생태관광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지역, 한국의 남단의 섬에 어울리지 않는 도시형 개발로 관광목적지로서의 매력성을 저감시켜왔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어울리지 않은 신도시 개발, 해안도로 등 지나친 도로 개발 등은 돌이키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육지부와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제주만이 제공할 수 있는 관광매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의 문화원형에 대한 발굴, 자연유산의 활용, 테마시설과 특수촬영기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영상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제주도를 ‘장수의 섬’ 이미지로 브랜드화하고 이를 청정 환경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들어 나가는 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질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광환경 관리제도 도입(환경친화적 관광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 혹은 공생적 생태관광 추진 등이 미래관광의 약속이 되어야 한다. 제주의 천혜의 환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을 추진하되 자연자원(생태자원 등)의 보전 가치를 중시하고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개발 행위(해안, 중산간 등)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지역문화에 접목될 때 합리적인 이용이 될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섬이라는 특수한 입지적, 자연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 변화 환경에 보다 민감하므로, 관광정책의 주요 의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관광업종별 기후변화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를 관광사업체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제주 관광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바다를 먼저 살려야 하며, 슬로우 관광프로그램 육성, 교통총량억제정책, 녹색관광상품개발, 섬지역 환경특성에 중점을 둔 관광정책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활에서도 녹색생활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어나가는 것이나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도 따를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지역으로의 전환은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 전략이 될 수 있다.

여섯째, 관광시장의 다양화와 함께 중국시장 확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전체의 관광시장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외래관광객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나, 중국의 해외관광 송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 관광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2020년 세계 5대 아웃바운드 송출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3년에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핵심 인바운드 국가가 되었으며 그 비중 또한 35.5%로 2012년 일본이 31.6%를 차지하였던 것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관광객은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최근 제주방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도내에 중국관광시장에 대응한 충분한 관광인프라와 관광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시장 다양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확대된 시장에 대한 맞춤형 관광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근접 시장인 일본관광객의 급격한 방문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단카이 세대와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와 같이 선진국의 고령층이 글로벌 신소비 계층으로 등장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제주의 관광수용태세를 정비하고, 음식 및 쇼핑관광 환경개선 및 지역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며 FIT 대상 온라인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옵션 관광상품을 다양화하여 제주도 방문 FIT 여행객 유치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관광시장은 입지적 측면, 자연자원적 측면에서 시장잠재력이 우수하나 투자 잠재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가고자 하고 있으나 아직은 국내시장의 점유율이 높음으로 시장확대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제 관광시장의 다양화를 통하여 제주관광의 투자 잠재력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제주형 관광산업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형 관광산업이란 제주만이 제공할 수 있고 제주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관광산업의 육성을 말한

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제주의 특화 관광산업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는 향후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의 선도적 수용, 제주관광의 대외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명품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제주만이 보유한 특성화된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가 보유한 세계자연유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생태관광, 제주의 청정지역을 기반으로 한 ‘물산업’과 연계한 물관광, 한류 및 문화콘텐츠와 연계한 영상관광, 해양을 활용한 해양관광, 휴양형 MICE 등이 제주형 관광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분야이다.

제주는 섬이지만 특수한 지질구조로 인하여 물을 활용한 자원화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제주는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 개발, 중장기 성장을 위한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의 융복합 전략은 관광을 포함 복수 이상의 산업 내지 경제활동이 서로 섞여 융합(fusion)되고 수렴(convergence)되는 현상으로서 관광을 중심에 두고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전략을 지칭한다.

제주도내에서 관광과 복융합 전략이 가능한 분야는 밀감산업, 물산업, IT기반 교육산업, 의료산업, 고령화산업, 헬스산업, 영상산업 등 1, 2, 3차 산업 모두 가능하다. 산업 자체적인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뛰어넘어 보다 국내외의 인지도 제고 및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여덟째, 제주관광의 브랜드 제고 및 국제적인 홍보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는 자원매력성에 있어서 국내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는 지역으로 자원의 특수성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주관광이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지역으로 제주를 제1목적지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관광의 브랜드’를 관광객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제주관광 브랜드는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여주는 것을 뛰어넘어 문화와 휴양, 산업 등 자원을 기초로 하여 시장별로 소구력있는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주 브랜드 개발과 홍보를 통해 제주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차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의 관광이미지 제고(내외국인에게 제주도만의 독특한 관광이미지 제공), 한국의 평화관광지역로서의 인지도 제고, 세계자연유산지역으로 청정

환경과 국제적 수준의 관광시설을 갖춘 관광지로서의 제주관광 브랜딩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홍보·마케팅 추진에 있어서는 제주의 마케팅 전략은 감성에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영혼'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⁴⁾.

강력한 이미지를 가진 제주관광브랜드 개발과 국제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제주관광의 이미지 및 장소성은 제주를 홍보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관광객 참여의 채널을 확대하여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조사·반영하고 관광상품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목표시장별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통계정보의 수집 관리 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마무리

제주도는 연간 방문객이 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이미 메가관광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메가관광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관광정책이 이제까지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향자a, 2012). 제주 방문객이 증가하는 곧바로 관광호텔 및 관광시설 개발 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관광수용태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미 다양하고 많은 관광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시설 조성이 추진 중에 있다. 언제까지 제한된 면적의 제주도내에 시설 개발을 추진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과 함께 메가 투어서대에 필요한 것은 확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여러 가지 관광개발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핵심적인 관광지역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계획과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14) 필립 코틀러에 의하면 마케팅 1.0은 소비자의 '머리'에 호소하는 것으로 제품의 품질을 광고하는 것임. 여기서 한발 나아가 마케팅 2.0은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 브랜드를 입으면 당신도 배웅준, 장동건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임. 그렇다면, 마케팅 3.0은 "사람들의 '영혼'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함

각 분야별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정책과 계획들이 방향만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장기계획과 함께 지속적인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향자a(2012),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의 관광수용태세 정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향자b(2012), 한국관광의 현안과 제주관광의 미래발전, 제주도의회 세미나(2012.97).
- 김향자a(2013),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관광의 역할', 문화융성 시대 국가정책의 방향과 과제, KCTI 기획총서 「문화융성시대 국가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향자b(2013), '지방관광 도시관광으로 활력을 찾아야' 계간 「한국관광정책」, 통권 제54호. 겨울호.
- 노영순·윤주(2013), 「저성장 사회에 대비한 문화·관광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류광훈·김송이(2013), 「경제전환기에 대응한 관광산업 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신철호(2013), '여가와 국가경쟁력 그리고 여가산업의 진흥', 문화융성 시대 국가정책의 방향과 과제, KCTI 기획총서 「문화융성시대 국가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심원섭(2011),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신관광정책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훈성·김향자(2013), 「한국관광의 질적 발전을 위한 관광품질관리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승훈·송재호(2013), 「미래 관광환경 변화와 중장기 관광정책 방향」, 제주발전연구원.
- 제레미 리프킨(2010), 「공감의 시대」.
- 제주발전연구원(2013), 「섬관광의 현재와 미래발전 전략」, 제주발전연구원총서14.
- 크리스 마틴스(2011), 「크라세코스」, 미래의 창(pp241~268).